

한 학기 한 권 읽기 뽀뽀한 가족 활동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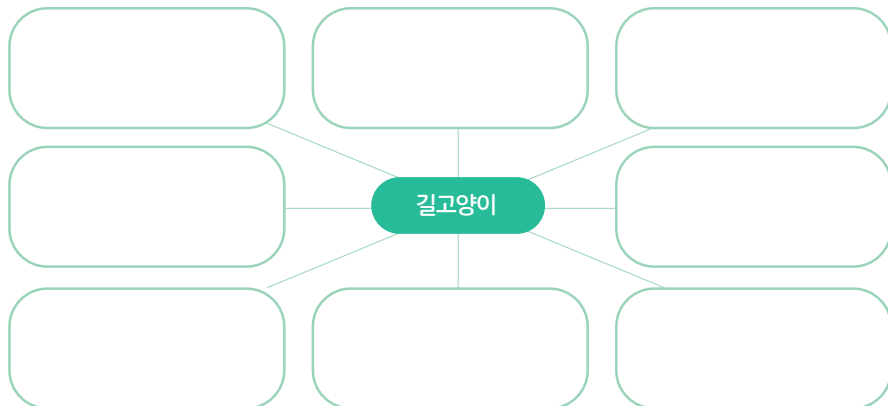


서유재



생각 그물 만들기

'길고양이'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 그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.



책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적어 보세요.



표지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써 보세요.





다음 내용을 읽고,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인 나동지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써 보세요.

① 오하얀이 나에게 길고양이 장례식 초대장을 줌.	→	② 나는 미납된 부조금을 내는 대신 죽은 길고양이를 찾아다님.	→	③ 봄이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.
④ 순이의 죽은 새끼고양이들이 묻힌 자리에 동백꽃을 놓아둠.	→	⑤ 교장 선생님의 길고양이 장례식 금지령에 맞서 집고양이 장례식을 치름.	→	⑥ 순이가 다시 새끼를 낳고,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길고양이 집을 만들기로 계획함.



주인공인 나동지가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듯이 이전과 태도가 바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떠올려 봅시다. 인물이 변화하게 된 중심 사건을 쓰고, 이전의 태도와 이후의 바뀐 태도도 적어 보세요.

이전 태도	→	중심 사건	→	이후 태도



진짜 ‘뽀뽀한 가족’은 누구?

책 속에는 한밤중에 안녕빌라에 침입한 두 가족이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고, ‘뽀뽀한 가족’이 누구인지 예상되는 두 가족을 써 보세요.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떠올리며 두 가족의 공통점도 적어 보세요.

- ◆ “어째 동지 엄마는 세월이 가도 뽀뽀한 건 변하지가 않아? 2년 반 전에도 빈손 탈탈거리면서 한밤중에 이 집에 침입해 들어와 놓고 되려 큰소리 뽀뽀 치며 살았지. 그러다 어찌어찌 겨우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, 맞지? 그런데 딱 2년 만에 그걸 다시 훌쩍 말아먹고 와서 큰소리 치나?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안 되는 거야.” (15쪽)
- ◆ “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뽀뽀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사람이나 동물이나 직접 사귀어 봐야 뽀뽀한지 뽀뽀하지 않은지 알 수 있거든. 인사해.” (33쪽)
- ◆ “그나저나 저 검은 고양이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? 꼭 여기 와서 새끼를 낳네. 저번에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? 아주 뽀뽀스럽기가 누구랑 똑같네.” (165쪽)
- ◆ “많이 먹어. 이번에는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야. 내가 104호 할머니와 싸워서라도 꼭 지켜 줄게. 너도 겁먹지 말고 새끼들 잘 보살피. 사람이든 동물이든 엄마는 말이다. 뽀뽀할 때는 뽀뽀해야 해. 새끼 고양이들과 뽀뽀한 가족이 되라고, 알았지?” (166쪽)

● ‘뽀뽀한 가족’은 누구인지 써 보세요.



● 두 가족의 공통점을 적어 보세요.





동물 복지란 동물도 배고픔이나 질병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책 속에서 세탁소 아줌마와 오하얀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밥자리를 마련하거나 장례까지 치러 줍니다. 그러나 안녕빌라 104호 할머니처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조차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

길고양이 밥 주기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은 어떤 의견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쓰고 모둠과 토론해 보세요.

길고양이 밥 주기 찬성

“길고양이와 공존 위한 방법 모색”

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 공식 인증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다. 급식소는 아파트 주민 케어테이커(캣맘, 캣대디)들이 청결하게 관리하고, 개체 수 조절을 위해 TNR(길고양이 중성화 사업)도 실시하기로 했다. 길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 문화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.

관련 근거 사람과 고양이의 공존,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통제 가능, 정기적인 사료 급여로 환경 훼손 방지

길고양이 밥 주기 반대

“혐오스러운 길고양이 개체 수만 늘린다”

인천 부평구가 한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. 반대 의견으로 한 시민은,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캣맘들의 활동이 인터넷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.

관련 근거 개체 수 증가로 생태계 파괴,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환경 훼손, 짹짹 시 소음 공해

토론 주제: <길고양이 밥 주기>

찬 성

나는 '길고양이 밥 주기'에 찬성한다. 왜냐하면

반 대

나는 '길고양이 밥 주기'에 반대한다. 왜냐하면



관용구란?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,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.



책 속에 표현된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고, 이를 활용하여 짧은 문장으로 글짓기를 해 보세요.

관용구 코빼기도 내밀지[나타나지] 않다.

도무지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함을 낮잡아 이르는 말.

책 속의 표현

“명절 때 말고 다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.” (14쪽)

짧은 글짓기

관용구 걱정이 태산이다.

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복잡해서 걱정이 태산처럼 크다.

책 속의 표현

학교로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. (114쪽)



짧은 글짓기

관용구 쥐구멍(을) 찾다.

부끄럽거나 난처하여 어디에라도 숨고 싶어하다.

책 속의 표현

나는 미안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. (132쪽)

짧은 글짓기





N행시란? 각 행의 첫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들어 내는 형식으로, 첫 글자를 아래로 연결하면 특정한 어구가 되는 시나 글.



아래의 제시어로 N행시를 지어 보세요.

제시어

① 길고양이 ② 동물 복지 ③ 증성화 수술 ④ 뽀뽀한 가족



길		동	
고		물	
양		복	
이		지	

증		뽀	
성		뽀	
화		한	
수		가	
술		족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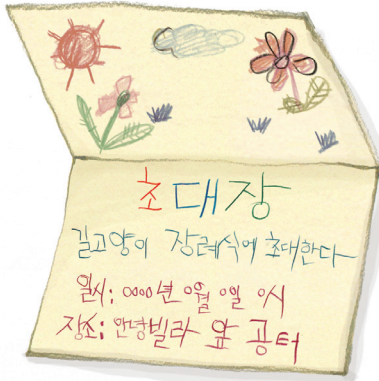


책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옮겨 적고,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써 보세요.

책 속 문장

선택 이유





〈길고양이 장례식 초대장〉

책 속에서는 오하얀이 나동지에게 길고양이 장례식에 오기를 바라는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.
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초대 내용을 떠올려 보고, 초대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.

예 생일잔치, 체육 대회 등



● 초대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.

● 초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.



일시 년 월 일 시

장소



책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낱말 퍼즐을 풀어 보세요.

		②						⑤					
		③				④							
①										⑦			
							⑥						
			⑨										
					⑩						⑬		
		⑧											
					⑪				⑫			⑭	
			⑮										
⑮													

가로 열쇠

- ① 나동지가 길고양이에게 주려고 냉장고에서 챙긴 간식.
- ③ 노랑이가 세탁소 앞에 물erma 놓은 꽃.
- ④ 104호 할머니가 앓고 있는 통증으로 아픔이 심할 때는 고양이를 먹는다고 함.
- ⑥ 오하안이 부조금을 건어서 구매한 물품.
- ⑧ 길고양이가 안녕빌라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.
- ⑩ 길고양이와 반대로 집에서 태어난 고양이.
- ⑪ 민수의 집에서 새끼고양이가 죽은 장소.
- ⑫ 받지 못한 부조금을 기록해 놓는 책.
- ⑮ 동물의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로, 동물이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는 수술.

세로 열쇠

- ① 나동지 할머니가 새끼를 낳은 손이에게 먹이려고 삶은 고기.
- ② 할머니의 집인 안녕빌라 103호에 살게 된 이 책의 주인공.
- ⑤ 손이의 새끼고양이인 봄이가 죽음을 맞은 사고.
- ⑥ 오하안이 초대장에 쓴 초대 행사.
- ⑦ 안녕빌라에 새끼를 낳는 길고양이의 이름.
- ⑨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곳.
- ⑬ 어떤 모임에 초대하는 뜻을 적어 보내는 편지.
- ⑭ 잔치나 장례에 보내어 도와주는 돈.
- ⑮ 길고양이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 주인의 아들.

정답

		㉒나						㉓교				
		㉔동	백	꽃		㉕신	경	통				
㉑소	시	지						사		㉗순		
고							㉘길	고	양	이	사	료
기			㉙밥				고					
			자		㉚집	고	양	이			㉛초	
		㉜유	리	창			이				대	
					㉝주	차	장		㉞외	상	장	㉟부
			㊱민				레					조
㊲증	성	화	수	술			식					금



“나를 왜 초대해? 저랑 나랑 언제 봤다고?”

고양이 장례식 초대장이라니.

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길고양이 장례식!

거기다 돈까지 내야 한다고?



이메일 seoyujaebooks@gmail.com
카페 naver.com/seoyujae
페이스북 [seoyujae](https://facebook.com/seoyujae)
인스타그램 [seoyujae_books](https://instagram.com/seoyujae_books)
유튜브채널 서유재